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세션 20, 사무엘 하 8-10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사무엘하 8-10장, 전쟁을 싸우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권에 대한 이상을 세웠습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의 제목을 전쟁과 약속 지키기로 정했습니다. 다윗은 왕권의 이상을 확립합니다.

다시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 전쟁을 싸우고 약속을 지키다. 다윗은 왕권의 이상을 확립합니다. 8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주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삼하 7장). 이는 취소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다윗이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모든 적들로부터 안식을 주신 후에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싸움의 소강에 불과했습니다. 그 약속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그의 왕조와 민족에게 더욱 영원한 안식을 주실 때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전쟁에 나섰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다윗이 모든 국경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국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서양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모압 사람들을 물리쳤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모압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서쪽과 동쪽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상당 부분은 다윗이 아람 사람들과 벌인 전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람인들은 북동쪽보다 북쪽에 더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물리치고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의 후반부에서 그는 또한 에돔 사람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쪽과 동쪽에 더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은 다윗을 이스라엘과 주님의 전쟁을 치르는 승리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쪽, 동쪽, 북쪽, 남쪽에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방향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취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국가의 안전을 제공하는 주님의 도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였고, 거칠고 험난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모압 사람들을 쳐부수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읽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땅에 눕히고 줄로 측량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길이마다 죽임을 당하였고, 세 번째 길이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중 잔혹 행위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다윗에게 복종하여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모압 국가를 일종의 완충 장치이자 조공을 바치는 주체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로로 잡힌 이 모압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야 하며 그들의 군대를 집으로 보내 다른 날 다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시기였으며 절박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논쟁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멸망할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이 족속들에게 평화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David는 여기서 일종의 중간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성경의 이 부분에서 다윗이 대부분 주님께 순종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읽는 것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 대해 법이 말한 것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평가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아람 왕 하닷에셀을 쳐부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왕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병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병거 말 백 필만 남기고 모두 다리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말을 햄스트링하면 더 이상 전차 말처럼 달릴 수 없지만 말은 여전히 일을 위한 초안 동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avid는 확실히 여기 프로그램과 일치합니다. 비록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그가 왜 그 중 100개를 유지했습니까? 그는 작은 전차 부대를 유지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왕의 법에 따르면 왕은 말을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차부대를 창설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순종합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즉 주님은 병거와 병거 말들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입니다.

근동 세계에서는 주요 세력이 전차 부대를 보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것입니다. 히타이트인, 이집트인, 나중에 아시리아인, 바빌로니아인은 전차 부대를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보병으로 보병으로 싸워야 하고, 승리하려면 나를 의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행동은 주님께서 정하신 정책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홍해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병거와 말들보다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군대가 바다에서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는 병거를 타고 가나안 사람들을 쳐부수고 실제로 병거 말들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다윗이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여호수아로 묘사되어 주님의 정복을 여호수아가 달성한 비율로, 어쩌면 그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곳에서 주님의 정책에 대부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하닷 에스라를 도우러 왔더니 다윗이 그들을 치고 다메섹 아람 왕국에 수비대를 두었더라. 그러자 아람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여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윗의 승리의 진짜 열쇠는 그가 가졌을지도 모르는 특별한 군사적 용맹이 아니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는 전차가 없었지만 전차가 있는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가 에돔 사람들을 쳐부수고 그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된 후에도 같은 내용이 14절에 기록될 것입니다. 더욱이 남쪽 국경에서는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윗의 이러한 승리가 다윗의 어떤 특별한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승리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매우 주의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은 에스라 하닷의 관리들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양의 청동을 도시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율법에 나오는 신명기를 기억하면 왕은 전차 부대를 건설할 목적으로 말을 모아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나 금, 은을 축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David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9절과 10절에서 그에게 닥쳐올 더 많은 금과 은에 대해 읽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다윗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그가 모든 나라에서 은금을

바쳤던 것처럼 이 그릇들도 주님께 바쳤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정복하였느니라.

그는 또 소바 왕 르호프의 아들 하닷 에스라에게서 탈취한 전리품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금은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에서 유명해집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이름은 점점 유명해지고 위대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지역에 수비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백성을 위해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물론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왕국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는 국경을 확보하고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의 적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는 대규모 전차 병력을 창설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는 신명기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금, 은, 동이 그에게 오고 있는데도 그는 그것을 말하자면 자기 은행 계좌에 넣어 두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님과 주님의 봉사에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저는 그가 동맹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부를 비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avid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9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질문을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요나단을 위하여 은혜와 충성을 베풀 사람이 남아 있느냐? 다윗은 자신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요나단의 후손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의 후손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자신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나는 조나단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혜를 베풀 겠느냐 그리고 2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시바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 앞에 나타나도록 그를 불러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시바냐? 그리고 그는 당신의 봉사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David는 이 개인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는 그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니라 그리고 2014년 사무엘상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님과 같은 변함없는 친절, 즉 주님과 같은 친절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David는 여기서 그런 종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후손에게 하나님과 같은 친절을 베풀고 싶다고 말합니다. 야훼나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들 에게 이런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바가 대답하되,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남아 있느니라. 그는 두 발이 절름발이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가 언급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어렸을 때 간호사에 의해 떨어져서 두 발을 절게 되었다는 간략한 괄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나요? 왕이 물었다.

로다발 아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다윗 왕은 그를 그곳에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소개한 이 사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오자 그가 몸을 굽혀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당신을 섬기오니 그가 대답하였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과 은총을 베풀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네게 돌려주리니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소유했던 땅을 므비보셋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므비보셋을 부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의 단골 손님이 되어 다윗과 함께 식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므비보셋은 몸을 굽혀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나처럼 죽은 개를 보십니까? 므비보셋은 정말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서도 겸손합니다. 그런 다음 왕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한 사울의 청지기 시바를 불러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과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네 주인의 손자에게 주었노라. 그리고 이제 다윗은 시바와 그의 가족에게 므비보셋을 돌보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어 네 주인의 손자가 먹을 것을 얻게 하라. 그리고 네 주인의 손자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이제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이 20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꽤 많은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팀을 갖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므비보셋의 필요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바가 왕께 맹세하기를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종이 행하겠나이다 그리하여 므비보셋은 왕의 아들 중 하나처럼 다윗의 상에서 먹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그가 두 발을 다 절었다는 사실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국경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전차 부대를 양성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에 저항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법정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우며 사울과 요나단의 후손에게 다가가 큰 은혜를 베푼 인물임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다윗의 사과, 다윗을 위한, 다윗을 변호하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나중에 우리는 여전히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대해 잔학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사울의 충실한 종인 다윗이 실제로 여전히 사울과 확실히 요나단에게 호의를 보이고 그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David는 여기서 좋아 보입니다. 이것은 모두 긍정적입니다. 그런 다음 10장에 이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친절을 베풀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카쉬의 아들 하눈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나도 그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다. 내 생각에 그들은 어떤 종류의 조약, 조약 관계, 상호 충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이 새로운 왕에게 다가가 그가 충실한 조약 파트너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눈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 위해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데이빗이 여기서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면, 그들은 친절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지휘관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이르되 당신은 다윗이 당신에게 사절을 보내 조의를 표하는 것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이까? 내 생각에 이 질문은 '정말로 이것을 사시겠습니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다윗이 이 모든 일에 진심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그 성을 탐지하여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그들을 너희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 아마도 David가 경력을 쌓으면서 거짓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는 리더로서 많은 누명을 쓰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눈은 이 조언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분명히 믿는 것 같습니다. 데이빗은 솔직하지 않아요. 그는 단지 상황을 이용하여 우리 도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로 정탐을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운은 무엇을 하는가? 그는 다윗의 사신들과 사자들을 붙잡아 각 사람의 수염을 절반씩 깎았습니다. 이제 이 문화에서 수염은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남성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문화, 이 고대 문화는 오늘날의 많은 문화와 마찬가지로 명예를 부끄러워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염의 절반을 깎음으로써 당신은 이 남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염 전체를 자르고 다시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끄러운 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공개된 나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자들은 턱수염을 반쯤 기르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들을 정말로 모욕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해해야 할 것은 메신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자를 보낼 때에는 그 사자는 자기를 보낸 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가느니라.

따라서 메신저를 볼 때 본질적으로 마스터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신저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메신저를 보면 마치 주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메신저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주인에게 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여러 번 주님의 천사는 주님의 사자입니다. 히브리어 말 라흐는 천사로 번역되지만 단지 메신저를 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자는 때때로 자신이 신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인간은 때때로 하느님을 직접 본 것처럼 반응하기도 합니다. 우가릿의 바알 신화에 나오는 우가르는 이스라엘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장소였지만 기원전 120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매우 계몽적인 태블릿과 텍스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신화적 텍스트에서 바다의 신인 얀(Yam) 신은 높은 신 엘(EI)의 권위 아래 세계의 왕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입니다. 폭풍의 신인 바알 신의 대적입니다. Yam은 신성한 집회에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자들은 높은 신 엘(EI)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주(主)인 얀(Yam)의 말을 보고합니다. Yam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흥미 롭습니다.

바다의 신인 참마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의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 신은 마치 그들이 얀인 것처럼 그들에게 말을 건다.

그는 마치 그들의 주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통해 그들의 주인에게 직접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심각한 사업입니다. 하늘은 다윗의 사자들을 이렇게 대함으로써 실제로 다윗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모욕하고 있으며 다윗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 모든 것을 감안하여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으므로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다시 오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모두 면도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나머지 반쪽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여기서 옷을 갈아입혀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암시된 것 같아.

하지만 David는 잠시 동안 그것들을 얼음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너희들은 굴욕적인 경험이 끝나고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가증한 줄을 알고 나가서 자기들을 위하여 싸울 아람 사람을 고용하려 하였더라(6절).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한 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온 군대를 거느리고 파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러한 모욕은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나와서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요압은 나가서 상황을 조사합니다. 9절에서 그는 자기 앞뒤에 전쟁터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군대를 선발하여 아람 사람들을 공격하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사람들을 그의 형제 아비새의 지휘하에 두어 암몬 자손을 치도록 배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요압과 아비새는 그들의 모든 잘못으로 인해 이 시점에서 둘 다 살인자가 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비새는 그 일에 협력했습니다. 아비새는 사울을 창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터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전사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다윗이 그들을 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들은 당신 편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당신이 와서 나를 구원하라 하였더니

그러나 암몬 자손이 너희에게 너무 강하다면,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올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필요할 경우 지원군을 확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용감히 싸우자.

주님께서는 당신의 눈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압과 같은 사람이라도 때로는 매우 신학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는 그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 방식이 항상 그의 신념과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군대를 책임지기에는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자 요압과 그와 함께한 군대가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아오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 형성된 연합군에 대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종의 개혁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하닷 에스라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아람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지원군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가 있으니 하닷 에스라의 군대 장관 소박을 거느리고 그들을 거느리고 헬롬으로 가니라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 요단을 건너 이 군대와 싸우러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병거 모는 자 7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쇼바흐를 쓰러뜨렸습니다. 하닷에스라의 신하였던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여 복종하였더라.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연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다윗을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약하자면,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는 이스라엘 전역의 적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전쟁을 싸워왔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특히 사울과 요나단의 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 땅에 정의를 세우셨도다

그는 왕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차병력을 키우고 부를 축적하려는 유혹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왕권의 이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장에 와서 봄에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요압과 왕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었다는 것을 보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에는 오프라인 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내러티브에는 주요 줄거리가 있고 그 주요 줄거리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유형의 동사 형태가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메인 라인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주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러티브에서 히브리어 단어 순서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제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주제를 먼저 배치할 것이며 이를 오프라인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중요한 오프라인 조항입니다. 이는 이야기의 속도를 늦추고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삽입된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1절 끝에 있는 오프라인 절이 무엇인지 주목하세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로 이끄는 이전 장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요압과 아비새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압박이 가해지자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 모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지금이 바로 왕들이 전쟁에 나설 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요압을 내보내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David가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장소에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알다시피,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상황이 항상 잘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데이빗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이 곤경에 처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다음 수업에서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2장은 아마도 다윗에 관한 두 번째로 유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 생각에 다윗과 골리앗은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과 밋세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는 군대와 함께 있지 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사무엘하 8-10장, 전쟁을 싸우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권에 대한 이상을 세웠습니다.